

1 사잇돌 대출 2 중금리상품 3 금리인하권... 3단계 노크를

스마트금융&제2금융

1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의 문턱은 높낮이가 있다.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금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제2금융이다. 안타깝게도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는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면 급한 마음에 빨리 대출이 되는 곳을 찾는다. 금리가 높더라도 대출이 우선이다. 최근 저축은행·P2P·캐피탈·카드사 등 제2금융권이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다. 메트로신문이 소비자 관점에서 2금융권을 똑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은행에서 예·적금 담보대출 1500만원(연 3.6%)과 직장인대출 2300만원(연 1%)을 받은 김모씨. 최근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은행을 통해 대출을 또다시 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론과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사이에서 고민한 김모씨. 카드론은 800만원 대출 한도에 연 12.9%를, 저축은행은 1000만원 대출한도에 연 12%를 제시해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저축은행의 정책 중금리 상

사잇돌, 한도 확대·자격기준 완화 민간 중금리, 업권별 차등화 적용 내년 2분기 평균금리 0.5%p 인하 사회 초년생도 중금리 혜택 '활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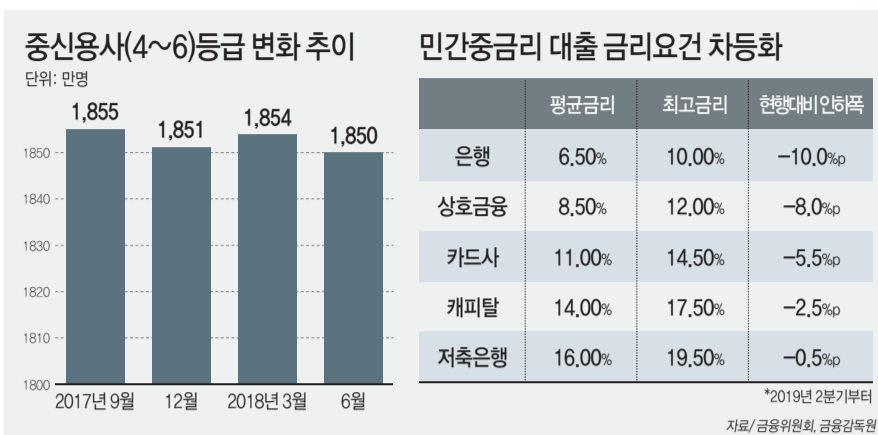
품 '사잇돌 대출'에 이어 올 4분기부터 민간 중금리 상품까지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단 중금리 대출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턱 높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로 몰리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상품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상품 '사잇돌대출'과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민간 중금리 상품으로 나뉜다.

5일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등급(1~10등급) 가운데 중신용자에 해당하는 4~6등급 인원은 총 1850만명(40.6%)에 달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시장에서 중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82%에 불과해 중·저신용자 대다수가 신용등급에 맞춰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사잇돌 대출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대출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평균금리	최고금리	현행대비인하폭
은행	6.50%	10.00%	-10.0%p
상호금융	8.50%	12.00%	-8.0%p
카드사	11.00%	14.50%	-5.5%p
캐피탈	14.00%	17.50%	-2.5%p
저축은행	16.00%	19.50%	-0.5%p

*2019년 2분기부터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민간 중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 기준을 지금보다 낮추고, 업권별로 차등화해서 더 많은 대출자가 중금리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 '사잇돌 대출' 안되면 민간 중금리 대출 '사잇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상품이다.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연 7.59~16.99%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때문에 저축은행은 위험차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소비자는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저축은행 모바일 앱(App)을 통해서도 사잇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1~2일내에 심사를 통한 대출도 가능하다.

내년부터 사잇돌 대출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급여가 아직 적은 신입 직원이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세 사업주가 사잇돌 대출을 이용하기 편하도록 소득과 재직 기준이 완화하는 것. 예컨대 근로소득자가 은행에서 사잇돌 대출을 받으려면 현재는 재직기간이 6개월이

상에 소득은 연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재직기간 3개월 이상에 소득은 연 1500만원 이상이면 된다.

만약 사잇돌 대출이 어렵다면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민간 중금리 대출상품이 올 4분기부터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저축은행 간 중금리 대출상품 경쟁이 치열해져 금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내년 2분기부터 중금리 대출금리 요건을 업권별로 차등화하기로 해 금리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저축은행 중금리 상품은 평균금리 16.5%, 최고금리 20%이지만, 내년 2분기부터는 평균금리 16%, 최고금리 19.5%에 중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하나의 상품을 선택한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득 등을 기입하면 대출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상품이 비슷해 보이지만 대출 상품별로 세부 적용 항목에 조금씩 차이가 가장 유리한 금리와 높은 한도를 주는 상품을 잘 찾아 이용하는 것만해도 이자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몇 개 정도 골라서 비교 분석한 후 대출을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노력만...

민간 중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해 금리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나이스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하는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새로 취업했거나 대기업 등 신용도가 높은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이직·승진 등으로 연봉이 오른 경우 ▲부채가 줄어든 경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라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제2금융권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소비자는 13만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2만8000명의 금리가 인하됐다. 인하가 반영된 대출규모는 16조60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때 유명무실했던 금리인하요구권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무심코 넘기지 말고 권리를 행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신한銀, 다방과 손잡고 '부동산 플랫폼' 구축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테이션3(다방의 법인명)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다방'은 국내 최초 오픈형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지난 2013년 5월 창업 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쳐 2018년 기준 월 평균 매물 등록건수 36만건, 매월 300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국내 대표 생활밀착형 플랫폼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신한은행의 부동산 금융 정보와 '다방'의 매물, 가격정보,



신한은행 장현기 디지털전략본부장(왼쪽 두번째)과 스테이션3 한유순 대표(왼쪽 세번째)가 협약식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지역정보 등 부동산데이터를 결합한 플랫폼 협업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유재희 기자

김포 대곶에 19번째 '일요영업점' 오픈

KEB하나은행 '대곶 일요송금센터' 외국인근로자·다문화 고객 편의 확대

KEB하나은행은 지난 4일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손님의 금융편의 확대를 위해 경기도 김포시에 '대곶 일요송금센터'를 개점했다고 5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평일 은행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손님을 위해 김포시청 인근에 위치한 김포지점을 일요일에 열어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김포 시내에서 약 1시간 가량 떨어진 대곶, 통진 등 김포 외곽지역의 금융수요 증가에 따라 '대곶 일요송금센터'를 추가로 개점하게 됐다.

이에 따라 김포 외곽지역은 물론 인천 검단 등 인근 산업단지 내 외국인근로자 손님들까지 금융 혜택이 대폭 확대될 것



박지환 KEB하나은행 기업영업그룹 전무(왼쪽 세번째)가 최영일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일곱번째) 등 김포시 관계자 및 하나은행 임직원들과 함께 지난 4일 '대곶 일요송금센터' 문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으로 기대된다.

영업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5시까지이며, 설날 및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 중에는 일요일만 휴무다. 외환송금, 환전업무는 주로 취급하며 일반 은행업무도 병행한다.

이로써 KEB하나은행은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위주로 평일과 일요일 모두 문을 여는 '일요영업점' 16곳, 일요일에만 문을 여는 '일요송금센터' 3곳 등 시중은행 중 최다인 총 19곳의 일요영업점을 운영하게 됐다. /김문호 기자 kmh@

제56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11월 14일~12월 6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11월 17일~12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응선) : 300,000 → 130,000원
11월 25일(일), 12월 2일(일), 12월4일(화)

www.leadersauction.com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KB국민은행 연금펀드 가입자 대상 '수확행 이벤트'

KB국민은행은 올해 말까지 연금저축펀드, 개인형퇴직연금(IRP) 펀드 상품 가입 고객에게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연금으로 수확행(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대상 자산운용사의 펀드 상품을 20만원 이상 신규하고, 자동이체 약정을 2년 이상 하거나 1000만원 이상 매수한 고객 전원에게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의 편의점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연금저축펀드 매수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 CJ통합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상품이다. 합산한 연간 납입금액 중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



으로 수령 시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돼 노후준비와 연말정산을 동시에 준비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안상미 기자 smahni@